

신년사

존경하는 전국 건설인 여러분!

희망찬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우리 경제와 건설산업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드리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.

돌이켜보면 지난 2019년의 우리 건설산업은 참으로 다사다난(多事多難)했던 한 해였습니다. 공공공사 분야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, 주택건설시장도 위축되는가 하면 해외건설마저 부진하여 침체를 면치 못하였습니다.

다행히,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총 100조 원 규모의 민간, 민자, 공공 분야의 건설투자 계획을 담아 건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, 아울러 우리 건설산업이 침병이 되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협회도 여러분과 함께 건설산업의 활성화, 지속가능한 발전 여건 조성 및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더 나은 건설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.

건설인 여러분!

그간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온 ‘건설업자’ 용어가 ‘건설사업자’로 바뀌었습니다. 정직하고 깨끗한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‘건설사업자’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.

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비상하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

2020년 1월 1일

대한건설협회 회장 유주현